

우리 주택에 대한 위생학적 음미

- 차례
- 一、우리민족의 기후 순화력
 - 二、주택의 결합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 三、건축법 제정 실시와 그 공과
 - 四、우리 주택 구조의 변천상
 - 五、현 주택에 대한 위생학적 음미
 - 六、주택 생활에 관한 기타 유의점
- 結 語



글 쓴 이
대한적십자사
보 건 부

현
규
환

序 言

우리들이 살고있는 주택은 그 목적이四季의 변화 즉 風·寒·暑·濕을 差斷하고 우리의 생활과 육내작업에 대하여 恒時 快適한 局所氣候를 조성하는데에 있다.

피복이 각 개인의 體溫調節에 필요한 것 처럼, 가옥은 一族一團의 피복이며 생활의 안녕을 보장하고 작업의 편의와 능력의 향상에도 이바지 한다.

그러므로 주택은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유쾌하여 일상의 건강 유지에 적당할 뿐만 아니라 또 堅牢性도 지녀야 한다. 의복의 미는 여성적인데 반하여 주택의 미는 남

성적이며, 의복의 생명은 짧으나 주택의 생명은 긴 것이니 주택은 그 건물이 파괴 소실이 안되는 한 백년도 갈 수 있고 천년도 갈 수 있다.

주택의 설계는 우리의 거주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에 잘 부합되어야 한다. 아무리 미술적으로 되고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주 목적에 무익한 것이라면 그것은 필요 없는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의 설계에 있어서는 현대 과학에 입각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주택의 개선은 의복, 식물처럼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영구성을 가지기 때문이니 불건강한 콘크리트造 주택의 建造는, 千年獄舍를 짓

는 것과 같은 것이다.

회고컨대 과거 십오, 육년전에는 한국 주택에 대하여 발전사적 또는 위생학적으로 조사 연구 흥미한 선배들이 많이 있었다.

특히 손진태, 김태양, 박길용 제씨는 구조에 대한 발전사적 조사를 발표하였고 富士貞吉, 二宮 司, 玄(筆者) 제씨는 온돌난방에 대한 위생학적 연구 발표를 하였으며 李萬鶴 工藤一郎씨는 온돌의 열전도에 대한 실험적 연구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주택 전반에 걸친 위생학적 조사 연구 내지 흥미를 시도한 분은 아직 까지 없었다.

이에 현하 주택 위생의 중요성에 감하여는 淺學菲才를 무릅쓰고 住宅에 대한 위생학도의 일인으로 책무를 느끼어 여기에 감히 붓을 드는 바이다.

1. 우리民族의 氣候馴化力

우리의 주택은 혹서 혹한한 우리 강토의 자연의 暴威를 피하여 자신에 적합한 국소 기후를 조성하는 곳이다. 그 옥내의 快適程度는 민족 개성의 氣候馴化力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이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기후 순화력을 숙고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한 민족의 인종적 구성 요소는 북방계의 원시 通古斯族을 근간으로 하여 이에 한족, 몽고족, 중세 女眞族과 약간의 南方系種族 및 그 밖에 극 소수의 백인종의 혼혈로서 성립하였으므로 한대 지방에서의 생활력의 강함은 물론 體內 鬱熱防護에

필요한 能動汗腺總數가 久野寧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열대지방 주민과 근사(능동汗腺총수 로서아인 1,636,000~2,137,000. 일본인 1,931,000~2,756,000. 한국인 2,060,000~3,000,000. 비올빈인 2,642,000~3,062,000) 하므로 한열대의 생활에 적당한 종족이며 기후 순화력은 매우 강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한기와 서기에는 무방비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2. 住宅의 缺陷이 身體에 미치는 影響

불량 주택으로부터 오는 건강 장애는 서서히 출현하며 吾人の 視野에 顯著하게 나타나지 않아 이에 關한 국내 보건통계는 구하기 어려우나 구미 신진 국가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상세한 통계가 나와 있다. 이에 그 일단을 소개하면 독일은 1885년에 Berlin市の 인구 1,000에 대하여 그 사망률을 일 가정 전용 居室數의 多寡에 따라 분류 조사 한 바 一室 이하의 가정에는 사망률이 163.5% 二室 이하 가정에는 22.5% 3室 이하에는 7.5% 4室 이하에는 0.5%라 하였고, 영국은 1886년 내지 1889년에 London市の 사망률은 全市가 18.8%인데 세민구역(Boundary St. Area)의 사망률은 40.0%이었다. 그리하여 독일에는 「결핵의 罹患率은 家密 住密에 정비례한다」는 말이 있고, 영국에는 “Back to back houses and tuberculososes”라는 말이 있다. 이 모든 것은 過群의 弊害이며 齷居生活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옥 자체의 결함과 이차적으로는 자연의 혜택을 모독함으로써 오는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거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로 방서 방한 시설의 결함으로 오는 건강 장애는 아무리 의복의 방어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이것 만으로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어서 결국은 신체에 異和를 초래하여 이환하게 되는 것이다.

하절의 熱放散過程 즉 通風이 불량할 때에는 鬱熱狀態에 빠져서 생리적으로 피곤 내지 설사를 초래하고 동절에는 방한 시설이 불비하여 奪溫作用이 급격할시는 鼻炎, 感氣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질병은 이차적으로 여름에는 중태의 下痢腸炎, 疫痢등을 유발하고 동절에는 感氣로부터 加答兒性肺炎, 肋膜炎, 百日咳등을 유발하고 肺結核, 喉頭結核을 惡化시킨다.

기후에 敏感인 乳幼兒가 夏冬에 犧牲이 많은 것은 생활양식의 불합리에도 기인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주택의 방서 방한의 결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防濕 施設의 결함으로 오는 건강 장애는 墜地와 壁 表面으로부터 오는 습기가 실내 공기와 온돌 表面을 습윤케 하므로 감기에 걸리기 쉽고 또 呼吸器病과 「류마치스」 신경통 등에 걸리는 유력한 유인이 되고 「디푸테리」, 홍역, 백일해에 걸리기 쉬운 素因을 조성한다. 특히 상하 수도의 불완전으로 수분이 주택 주위의 지면에 침투되면 주택의 안에까지 습윤 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습기있는 가옥은 病院군의 好棲息處가 되는 것이다.

셋째로 실온의 過熱乾燥로 오는 健康장애는 呼吸氣道를 해롭게 하고 甚할때 鼻炎, 感氣, 氣管支炎, 扁桃腺炎, 「디푸테리」肺炎등의 커다란 유인이 되는 것이다.

넷째로 주택 구조가 자연의 혜택을 모독할 때에 오는 건강 장애로는, 採光 施設에 결함이 있을 때는 실내가 음침할 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우울하여지고 일광 소독의 기회가 없어서 병균이 실내에 장시간 서식하게 되고 신체의 저항력이 약하여 지며 특히 시력이 약하여지니 근시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貧血尙僕病, 공기 전염병 등의 발생 원인이 된다. 공기 부족은 환기 부족을 초래하므로 실내 공기가 오염되어 결핵을 유발하고 동절에는 急性, 炭火中毒 즉 일산화탄소 중독의 기회가 많은 것이다. 공기 전염은 옥외 대기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기없는 실내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3. 建築法制定實施와 그 功果

식품에 대한 보건 문제는 일찍 「아테네」 「로-마」시대로부터 엄중히 取締하여 부패된 식품과 신체를 해롭히는 식품 판매자는 엄벌에 처하기까지 하였지만 불량주택에 대한 취체는 오래동안 방임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1842년 영국 의사 Southwood Smith가 London의 大貧民窟에 대한 보건적 조사에 착수하여 그 세민 주택의 불합리와 개선을 제창하고 사회의 여론을 환기하였던 바 그후 약 10년의 경과한

1851년에 세궁민 합숙소 취급법 (Common Lodging House Act)를 제정 실시 하였고 1890년에는 노동자 주택법(Housing of Working classes Act)으로 추가 訂正 실시되어 당시에는 「청년의墓場」이라고 하던 영국의 밀집 거주지대가 지금은 가장 좋은 건강지대로 化하게 되었으며 이 법령이 점차 발전하여서는 시가지 건축물법, 도시계획법이 되어서 세계 각국의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미국은 1934년에 일본은 1919년에 각각 如此한 법령을 실시하였고 우리 한국에서도 일정 시대에 이와 유사한 법령이 있어 상급도 일정 시대의 「시가지 계획령」이 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매우 애매한 점이 많으므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차 다행히도 관계 당국이 이에 照鑑하여 「도시 계획법」을 기초,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얻어 近 近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에 회부 중이라니 하루 속히 이 법률이 제정되어 강력히 실시 되기를 소원하여 마지 않는다.

4. 우리住宅構造의 變遷相

先史시대의 주거로는 구라파에 있어서 초기 구석기 시대에는 삼림 근방의 평지에 露天(營)생활을 하고, 때로는 巨岩下에 은신하여 雨露를 피하였고 第四氷河 기후 到來時에는 심한 한랭이 내습하였으므로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洞穴생활을 영위하였으며 후기 구석기시대, 中石器시대, 신석기시대 초기까지는 堅穴생활을 하다가 中期

와 청동기시대에 비로소 주거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한다.

도리켜 우리 한국의 과거를 살펴보면 역시 고대인은 雨露와 한기를 막는 한 수단으로 혹은 자연의 동굴을 이용하고 혹은 窄地入穴하여 자연의 맹위를 피하였던 것이다. 문헌상으로는 晉書四夷傳에 肅慎一名 挹婁(中略) 居深山窮谷, 其路險阻, 夏則巢居, 冬則穴居이라 하였고 魏書勿吉傳에 勿吉國, 在高句麗北 舊肅慎國也(中略) 其地下濕, 築城穴居, 屋形似塚, 開口於上 以梯出入이라 하였으며 後漢書東夷傳에는 挹婁古肅慎之國也(中略) 處於山林之間 土地極寒 常爲穴居 以深爲貴, 大家至接九梯 好養豕食其肉衣其皮, 冬以豕豪塗身厚數分, 以禦風寒. 金史 女眞族欄에는 坎地梁木其上, 覆以土, 夏則出隨水草以居, 冬則入處其中 遷徙不常. 舊唐書北狄傳에는 勿吉國 在高句麗北 一曰靺鞨(中略) 茲依山水堀地爲穴 架木於上 以土覆之 狀如中國之塚墓 相聚而居, 夏則出陰水草, 冬則入處穴中 父子相承. 馬韓住居는 草屋土室 形如塚 開戶屋上 其中家族共居라고 하였고 東瀛는 그 주거 속에 질병과 사망이 있으면 이것을 放棄하고 다른 새로운 주거로 이거하였다는 사실이 있으며 현존한 遺趾으로는 선사시대의 주거址(雄基貝塚)와 제주 三姓穴 그리고 각처에서 산견되는 동굴(橫穴) 竈地 窰(堅穴)등이 있다. 그러던 것이 그후 기후의 변천과 인지의 발달로 말미아마 지상으로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 지상의 주택형은 모두 북방 대륙계의 것으로 원추형의 천막, 蒙古色(흙담집) 累

木式家屋(귀틀집) 반 지하 주택 형이었고 온돌은 선사시대 주거지 또는 濫突址(雄基貝塚)를 통하여 벌써 석기시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주택은 유목시대의 隨水草以居를 지나 삼국시대의 정착 작농시대에 이르러 중국 당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주택은 전대의 것 보다 다소 진보한 立柱건축이 일어났고 궁전 판사, 불사, 신묘등 대건물은 중국식으로 棟樑를 사용하여 점차로 목조 기와 건축이 발흥하기 시작 하였으니 근대 住家 건축의 기초가 이때부터 즉 삼국시대로부터 확립 된듯 하다.

이리하여 지배 계급과 귀족의 저택은 일시에 고급화되었으나 민중의 그것은 겨우 움집에 기둥을 세우는 초가로 되었을 따름이었으며 이것은 고려, 이조를 통하여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조에서는 둥근 기둥은 官衙 이외에는 사용치 못하게 하여 민간에서는 오직 각 재판을 사용하였고, 온돌은 十七세기 인조조의 영의정 김자점이 산화 방지를 위하여 인조 대왕께 稟告로 五部 인민에게 온돌 설치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러는 동안에 이조에 들어와서 점차로 이론보다 경험이 선행하여 건축 기술도 발달되고 체제도 대체로 규모화 하였고 풍수 사상이 주택 건설에 까지 침입하여 家相은 주로 擇地에 名堂을 구하여 背山高臺를 점령하고 대지는 북돌아 높이며, 방위는 吉向을 엄선하였고, 온돌은 북한 한지에서 발달하여 그 구조에 개량을 가하고, 원목 굴뚝을 크고 높게하여 연기를 뽑아 올리

고 지붕에는 공기층을 두어서 방한 방서에 유리하게 하였고, 단창이 쌍창으로 되고, 환기창으로 돌창 되창이 생기게 되었으며 유목 시대의 유물로 함경도의 “정주간” 제주도의 “대좌마루”와 “널문”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방 구조는 개량되어 칠척방, 팔척방, 구척방이 생기고 육간 초옥에 팔간 와가가 세워지며, 더욱 발전하여서는 大家집은 20간 하고도 사랑別棟까지 생겨서 최대 百間大廈도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의 규모있는 주택 구조를 검토하여 보면 방습, 방한, 채광, 환기등에 심히 유의한 자취를 볼 수 있으나 일반 서민층의 一間斗屋은 방한만을 위주로하고 채광과 환기에는 그다지 유의하지 않는 것이 현재 잔존한 당시의 건물들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이조탈업 신 문화가 수입되어 개화할 무렵에 일본인이 내침 입주하게 됨에 따라 일본의 열대성 「바라크」형 주택이 이입되어 양철지붕, 일본개와, 다다미(榻), 변소 회벽 유리창등이 모방되어 우리의 주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외식을 절충한 간이 주택이 林立하게 되므로써 도시의 일반 특권층에서는 신 주택에 외식을 많이 도입하여 채광 환기등에 좋은 성과를 가져왔으나 八·一五해방 후에는 이러한 수많은 적산 주택의 다다미는 모조리 철지되고 온돌로, 도고 노마(床間)는 벽장으로 개조되는 일대 소란이 있었으며, 六·二五후는 미국 원조로 새로운 건축 자재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된 부흥 주택은 서양식 알락 달락한 소위 신 문화 주택이 대 도시 도

처에 건립 되었으니 정치의 힘이란 위대한 것이어서 이와 같이 주택의 구조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5. 現住宅에 對한 衛生學的 吟味

현 주택은 이상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도시에는 소위 문화 주택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農山漁村에는 구태 의연한 방한 방풍을 위주로 하는 一間 草屋들이 전부인 현상이니 이에 음미할 대상은 자연적으로 都鄙의 대중 주택이 되지 않을 수 없다.

(1) 築地(집터전)

대지는 가옥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肺臟의 역할을 하여 가옥의 신진 대사의 老廢物인 일체의 배설물을 받아 드리고, 또 一家團樂의 오락장도 되며 화단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금을 통하여 이 대지의 선택은 매우 중요시하여 대지는 필연적으로 高燥한 장소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열대 지역의 개척에 있어서는 대지의 선택을 잘못하여 低濕地에 정하였기 때문에 악성 열대 마라리아(瘧疾)에 걸려 주민이 전멸하였다는 사실이 백인 개척 이주사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한국에 있어서도 선주민들은 대지를 택함에 있어 「茲依山水 掘地爲穴」이라 하였고 또 「夏則出隨水草以居 冬則入處穴中」이라고 史記에 기재되어 있으니 동절은 남쪽양지 山丘陵地에 掘穴以居하였으며 하절에는 수초를 따라 다니다가 草叢中에서 휴식 안민한 것을 가히 추측할 수

있다. 또 이조시대에 풍수 사상이 들어와서 名堂을 구하여 산 기슭 또는 소 구능의 安隱한 高燥地를 택하였으나 水田 開發에 의하여 수리조합 蒙利區域이 확대됨에 따라 농가 대지가 水田속에 앉게 되어 농사 시절에는 '모기들의 내습을 받아 瘧疾의 위협을 상시 받고 있는 것이다.

근일 도시에서는 築地 狹窄으로 沿沼地의 汚物埋立이 성행하고 埋立 즉시로 건축에 착수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러나 이런 것은 법률로써 금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곳은 비위생적이니 塵埃와 汚穢物로서 매립된 토지는 그 속에 있는 유기물의 부패로 地陷하여 가옥에 경사가 올 뿐만 아니라 부패 독기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기 쉽고, 또 습기가 많아서 가옥과 실내 비품에 손상을 가져오며 거주자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 특히 결핵, 류마치스, 신경통 下痢腸炎, 기타 위장병 및 호흡기 병에 걸리기 쉽다. 그러므로 오물 매립지는 최소한 5·6년간은 밭으로 사용하여 지반이 고정됨을 기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植樹를 많이하여 지하殘水의 증발을 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상적인 대지의 조건은 첫째 토지가 건조하여야 하고 (가급적 砂質壤土) 두째는 일사 통풍이 좋으며 셋째는 良水의 공급 배수의 편의가 구비되는 환경이 좋은 곳이라야 한다.

(2) 建築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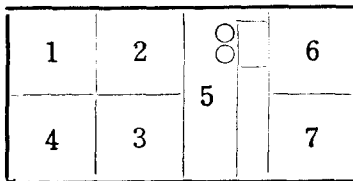
우리의 재래주택의 구조는 방한을 위주로 발전한것인 만큼 극단으로 말하면 추위를 피하여 조그만한 채광창을 가진 토굴

에 온돌을 놓고 웅크리고 있는 양상이며 그 주택의 외형 구조를 대체로 이분하면 集中式 中庭式으로 되어 있다. 집중식 주택(□형)은 함경남북도 평안북도 압록강연안, 강원도 해안선 지역에 있고, 중정식주택(ㄱ ㄴ ㄷ형)은 경기 충청, 전라, 황해, 평남 및 강원도 일부 지역에 주로 있다. 집중식은 動線이 적어서 편리하지만 반면 중정식은 동선이 매우 커서 주부의 一日 동작이 대략 십리가량 되리라고 한국의 건축가 고 박길용선생은 일찍 소논문들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주택 내부의 室配置도 대략 2분하여 집중식은 ① 고방(庫房) ② 안방(內室) ③ 밖방(外室—주인방) ④ 옷방(上房) ⑤ 정주간(廚房) ⑥ 방아간 ⑦ 마구간 ⑧ 여자 변소 ⑨ 남자 변소등으로 되어 있으며 중정식은 ① 고방 ② 부엌 ③ 안방(내방) ④ 대청 마루 ⑤ 건넌방 ⑥ 창고 ⑦ 변소 ⑧ 장독대 등으로 배정되어 있다(도면 참조).

온돌 구조는 정형적인 헛튼고래, 고든고래, 부채고래, 구분고래 외에 3종의 혼합형이 있는데 그 분포 비율은 전국적으로 보아서 고든고래가 제일 많아서 55%이며 다음 헛튼 고래가 22% 부채고래가 10%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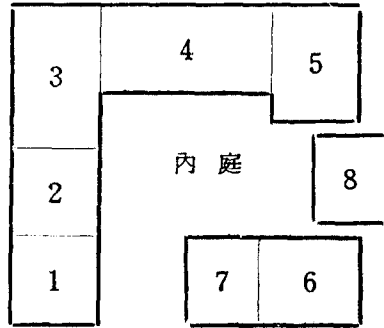
集中式住宅型



1, 2, 3, 4, 5.....溫突
6.....土間

7.....마루

中庭式住宅型



(3) 建物の方向

건조물의 방향 선택은 고금을 통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한국은 이조시대를 통하여 지금까지 風水觀的방위를 보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여 주택의 방향은 그지방의 기후, 특히 위도 관계, 風向여하에 따라서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하절은 남쪽 광선이 지붕을 직사하고 실내에는 다소 들어 오는 정도 이므로 남쪽 창을 열어 놓으면 涼風이 침입하여 매우 좋으며 열사의 우려는 없다. 그러므로 가향은 원칙적으로 정남으로 하고 主風의 방향을 참작하여 동서로 15도 이내 회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택은 風向보다 태양 광선이 주가 되어야 함은 찬언을 요치 않는다.

季節과 主風의 關係

지 방 별	하계 주풍	동계 주풍
남부 부산	남 남 서	북 동
중부 서울	남 서	서 북 서
북부 평양	동	북 서

비고; 남한 분은 단기4290년 국립 중앙관상대 기상년표에 의함

(4) 建物の基礎와 室 配定

7. 우리 한국은 중부 이북에 있어서는 동계 지면 온도가 영하로 추락되므로 지중의 수분은 동결된다. 이 동결의 심도는 한기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중부 지방은 대체로 50cm 북부 산악지방은 약 1m에 달하나 적설이 많은 곳은 지중 동결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

지면이 동계에 동결 되었다가 봄에 解土하면 땅이 상하로 신축 또는 이동하게 되므로 그 지상에 건립한 營造物의 구조에도 동요와 이동을 가져오니 건물의 기초는 적어도 동결선 이하에 하여야 한다. 즉 건물의 기초공사는 최소 한도로 북부지방은 5척 이하 중부지방은 3척이하, 남부지방은 2척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4290년도 중앙관상대 발표, 남한 주요 도시 동계 지중 온도표를 게재하면 다음과 같다.

지중 심도	서울	강릉	추풍령	대구	부산	광주
0.1m	-2.6	-0.6	-0.4	1.8	3.3	2.7
0.2m	-1.7	-	0.4	1.9	3.8	3.1
0.3m	-1.1	1.1	1.1	2.2	3.5	3.5
0.5m	-0.7	2.0	1.5	3.0	4.7	4.1

우리 한국은 과거에는 所在의 京鄕과 주저의 대소를 막론하고 기초 공사에는 매우 힘을 드려 시공하였다. 재래식은 대지에 盛土하고 이것을 굳게 다지고 다진후에 초석을 배정할 처소에 동결선까지 掘窄하고 그 곳에 礫石을 짝 차도록 넣고 다진후 그 위에 커다란 초석을 놓고 부동하도록 고정한 후에 비로서 支柱木(기둥)을 세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도 면밀한 시공끝에 그 위에 서로 交咬하는 치목을 치밀하게 조립한 과거의 주택은 4.50년은 물론 5.6백년 내지 천년고옥이라도 그 기초에는 커다란 변동이 없었으나, 근년에는 아무런 기초 시공이 없이 초석을 놓고 治木 組立도 소홀히 하였으므로 일차의 동결로 기초에 변동이 오게되고 신식 시멘트·콘크리트식도 너무 지나치게 菲薄하며 시멘트 配合이 불량할 때는 일년도 못가서 벽 전체에 균열을 가져오는 불합리성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실내에 습기와 賊風이 침입하여 건강을 해롭게 할 뿐 만아니라 건물 자체의 수명에도 영향을 가져오므로 기초공사는 학문적인 원칙 그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8. 室의 배정은 도로와 채광에 유의하되 거실은 가급적 남향을 택하고 특히 受熱量과 冬夏의 恒風의 벽풍을 고려하여 여름은 바람이 잘 통하여 신선하도록 하고 겨울에는 바람이 안맞고 채광이 충분하여 실내가 온난하게 하여야 한다. 거실이 아닌 취사장 목욕탕, 변소등은 북쪽에 그리고 응접실은 서쪽으로 하는 것이 좋고 또 설계상 통레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국내 기후가 쾌적하여 건강은 증진되고 모든 작업은 능률이 거양된다. 근일 소위 문화주택들은 실의 배정에 유의하여 채광도 고려하고 있으나 재래형은 여전히 거실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실의 채광을 서쪽에 두고, 남쪽은 부엌과 창고로 가로막으며 북쪽은 벽, 동쪽은 쌍창으로 대청 마루에 연결되는 정형적 형태를 견수하고 있

으니 보건상 또는 작업의 능률상에도 심히 불편하므로 하루 속히 내실의 위치를 남향으로 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5) 壁

한국의 기후에 있어서 벽은 동기에는 외부에서 침입하려는 한기와 내부에서 방산하려는 열을 막고 하절은 방습 방서 냉방 등의 필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이 길고 또 생활에 곤란을 당하고 있으므로 壁體는 주로 방한이자 보온적이고 방습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벽질은 경제상 傳熱係數가 가장 적은 것이어야 한다. 이에 三浦運一博士가 측정한 각종 실 벽의 전열 계수표를 참고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실 벽 재료	전열 계수(δ/Ps)
연 와	2.1
煉瓦中空	1.7
콘크리트	2.6
콘크리트 중공	3.7
荒 壁	1.2
판 자	0.7

이상의 표로 보아서 열학상 또는 위생학상으로는 판자와 황벽이 가장 양호하고 다음에는 연와류이며 「콘크리트」가 가장 불량하다.

대체로 보아 현하 우리의 주택이 주로 황벽인 점에서 한국 주택의 벽은 나무랄데가 없으나 6.25동란 후에 흙 벽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좀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것을 다시 위생학적으로 음미하면 황벽(맞벽)의 질은 위생학적 성질은 매우 양

호 하지만 벽이 얇기때문에 실온의 변동률이 커서 방한 방서력이 박약할 뿐만 아니라 난방시 손실 열량이 막대하고 또 소홀한 공사에는 기등과 벽사이에 間隙이 생겨서 심한 환기작용과 건강상 심히 불량한 賊風(쇠바람)이 침입하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한국은 외벽에 석벽을 중착시킴으로 이상의 모든 부족이 보충되어 방한, 보온, 방서상 매우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흙 벽돌벽은 전열 계수가 극히 적어서 방한과 보온에는 매우 좋으나 질이 懦弱하고 습기를 흡수하기 쉬우며 파손되기 쉬우니 시공시는 우수가 직접 닿든지 또는 지표로부터 跳上되어 벽체를 습윤케 한다. 그러므로 腰壁은 多孔質이 아닌 구운 赤煉瓦를 쌓아서 들어치는 우수나 지상에서 상승하는 습기를 흡인하지 못하도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벽체가 매우 습윤 할시는 內側 塗料로 인하여 수분이 밀폐되어 반점도 생기고, 또 黃色苔類가 번식하여 목재 또는 철재를 侵蝕시키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멘트 벽돌은 赤煉瓦 보다 가격이 저렴한 관계상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위생학적 성질은 불량하여 방한 방서가 불완전하고 난방 손실이 막대하다. 그러므로 시공시에는 2~3매의 벽돌을 쌓고 內部 下塗를 두겹게하며 가급적이면 외벽에 포장을 함으로써 이상에 열거한 부족을 제거할 수 있다.

다음은 벽 내면의 포장인데 이것은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다. 종래의 촌가에는 토

벽 그대로 엮으나 근래에는 신문지라도 바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펍 좋은 傾向이라고 본다. 그것은 벽 내면에 紙, 布 또는 판자류를 붙이면 벽의 열전도가 적고 난방 효과가 속하여 진다. 경제가 허락한다면 벽과 포장 재료 사이에 약간의 공기층을 갖도록 판자(베니아 板 등)를 붙이면 열의 차단력을 높이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6) 지붕과 天井

지붕은 우로를 방어하고 방한 방서를 한다. 그러므로 지붕의 재료는 열의 불량도체이어야 하니 초가 지붕이 가장 좋으며 다음이 「스레도」蓋瓦 제일 불량한 것이 양철 지붕이다.

초가 지붕은 화재의 위험과 매년 재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고, 양철은 동절에는 실내의 온기를 외부에 방산하고 하절은 직사 태양 광선을 흡수하여 실내에 도입하므로 보전상 심히 불량하다. 더욱이 양철 위에 다시 흑색 칠을 하면 가일층 불량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종래의 농촌의 초가나 도시의 와가는 경제면으로 보아서나 보전상으로 보아서 가장 양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근일 국내에서는 「밭고니」로서 옥상 씨멘트 평지붕이 유행되는 바, 이것은 외관상으로는 매우 좋은 것 같으나 폭양과 폭한에 균열이 생겨 천정이 漏水되기 쉬운 결점이 있으니 방수 시공에 入念하여야 한다.

종래의 한식 주택에 지붕에 흙을 올리고 지붕과 천정 간에 공기층을 만든 것은 방

한과 방서상 극히 좋은 것이며 천정에다 天板을 하는 것은 방한 방서에 일조가 될 뿐만 아니라 생활에 쾌감을 느끼게 한다.

천정에는 「시구이」(洋灰)천정이 가장 좋고 다음에 베니아판 천정이며 가장 좋지 못한 것이 종이 천정이다. 특히 종이 천정은 그것이 粗惡한 것이라면 건조와 통풍에 의하여 용이히 파열하니 열이 손실되어 외풍으로 인한 感胃에 걸리기 쉽다.

(7) 窓口

주택이 竈으로부터 발족한 초기의 시대에는 대기와 채광의 중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흑한과 풍우를 방어하는데만 그치었으므로 태양 광선의 입사와 대기의 교환은 전연 무시하여 창문을 두지 아니 하였으나 근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일광과 대기의 중요성 그리고 주거 내외의 공기의 組成과 性狀이 다르며 채광 유무가 건강 유지에 큰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옥외의 공기는 대기의 自淨作用 즉 절대 대한 稀釋力에 의하여 항상 신선하여지고 있으나 다수인 집거 또는 밀폐한 실내의 공기는 산소 감퇴 탄산가스 증가 등의 화학적 성분의 조성파 온습도 상승의 물리적 성상에 변화를 초래하여 불쾌감, 두통, 권태, 嘔氣 食思不振 등을 일으키는 때에는 오한까지 갖게 된다.

그리고 태양 광선은 생물의 신진대사를 향진 시키고 자외선으로 하여금 살균작용을 일으켜서 실내 공기를 정화하여 공기의 전염을 방지하며 적외선은 온열을 공급하

므로 동절을 온난하게 지낼 수 있게 하니 우리와 같은 寒地 住居에서는 채광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채광과 환기를 충분히 할려면 크게 만드는 것이 첩경이다. 고금을 통하여 대지는 우리의 臟肺에 비유하고 창문은 기왕에는 우리의 눈(眼)에 지금은 우리의 五官에 상응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절은 晝間에 창으로부터 陽光을

충분히 받아드리고 夜間은 덧문 또는 카-틴을 쳐서 室溫의 防逸을 방지하여야 하며, 하절은 日射를 방지하고 涼風을 導入케하여 기분을 상쾌케하고 부단한 開窓換氣에 의하여 실내 공기를 淸淨케 하니 창 위치, 종류, 형상 또는 대소가 室의 死活을 지배한다. 이에 주택의 방위에 따라 채광량이 다르고 또 계절에 따라 直射 光線 總量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方位에 의한 採光上 利害關係

구분 방위	채 광 량		태양 직사 광선 총량 비율		
	춘 추 분	하 지 동 지	하 지 동 지	하 지 동 지	하 지 동 지
동 면	오전	많은 오전 직사 동계 난방에 유리	4.3	5.8	1.8
서 면	오전	적은 오후 직사 고온			
남 면		많은 동계 하계 고온	4.0	0.9	7.5
북 면		적은 동계 한습	—	0.3	—

十尺높이의 남창으로 부터의 日光射入은 하지에는 방바닥 二尺까지 入射하고 춘추분에는 七尺, 동지에는 十六尺 되는 곳에까지 入射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보아서 남창은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동서 북창은 겨울에는 춥고 初夏에는 덥게 된다.

태양 광선의 照度는 창이 클수록 증가되나 폭이 넓은 것 보다는 높이가 증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높이가 큰 창은 照度를 평균히 분포시키고 폭이 큰 창은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한국의 종래의 窓高가 높은 것과 또 쌍창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광선의 入射와 照度에 매우 양호하다 하겠

으며 남면이 대부분 창이 되고 동서북 三窓이 적은 것은 꽤 합리적이라 하겠다.

자연 환기와 통풍은 대부분이 창을 통하여 되고 방한 방서 방식의 조절도 역시 창으로 이루어지니 그 효율은 對窓합으로써 고조된다.

유리창의 광선 투과율은 보통 板유리 90% 磨유리 80% 細縞유리 70% 色硝子황색 50~60% 녹색 20~25% 그리고 赤藍色 순으로 감소된다.

유리창은 깨끗이 닦아도 대체로 10~15%의 照度를 감소시키고 점차 먼지가 부착하여 닦은지 10일후에는 40% 일 개월후에는 80%의 감소를 가져오고 특히 유리창에 雨滴이나 결빙이 있으면 차광률에 큰

영향을 준다. 窓厚紙의 차광률도 지질에 관계있지만 대략 50%정도이고 이것도 날이 갈수록 높아져서 내중에는 약 30%로 되며 백색 카-턴은 20% 鼠色카-턴은 10%이다.

근일 우리 주택의 창문들은 옛 모습에 비하여 아주 변모하였으니 첫째로는 옛날에는 돌창이니 되창이니 하는 환기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고 둘째는 창후지(窓厚紙)를 발랐던 창문들이 유리창으로 변하여 가는 것이다. 이리하여 換氣孔이 있는 창후지(백지)를 바른 온돌방도 환기회수는 한시간에 겨우 약 1회 (0.9회)던 것이 지금은 換氣孔이 없는 유리창으로 변하니 자연 환기에는 기대할 수 없으며 목탄 연탄 가스등의 중독에 걸릴 기회가 많고 보면 재래식의 돌창 欄間 廻窓을 부활 사용하는 것이 미관상 실질상 또는 보건상 대단히 유효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 환기창은 장시간 개방하여 한시간에 2.3회 정도 자동적으로 환기하여 실내 공기가 정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통 성인남자 한사람의 안정시의 所要 氣積은 33립방미 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동기 就床時의 주택 사정은 氣積이 불과 5립방미 밖에 안되는 실태이니 우리는 환기에 무엇보다 힘써야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명 양식은 천태만양으로 되어 있다. 山谷에는 아직 등불(저름가지에다 쌀듬물에 겨를 섞어 붙여서 달린것)이 있는가 하면 江原道 大和平浬에는 코굴(관솔 불을 피우는 것)이 있으며 작은 어촌에는 魚油燈(접시에 魚肝油

를 담고 솜 심지를 꽂아 점화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도시에선 전등불 그것도 형광등이 휘황하고 있다(물론 일부 세민층은 여전히 석유등 양초를 사용하고 있지만). 조명에는 전등이 가장 양호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전등중에도 형광등이 보건상 더 좋은 것은 우리들의 網膜을 자극하는 전기의 적색 顯光을 형광등의 청색은 이러한 적색을 방어하기 때문이다.

(8) 온돌 난방

대체로 이상적인 난방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난방체가 위생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난방체가 청결하여야 하며 燃燒產物이 실내에 방출되지 않고 실내의 溫濕度를 能히 조절할 수 있을 것과 輻射熱이 主가 되기 보담 對流傳導가 主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내를 균등히 온난하게 하되 상하의 온도 차가 2~3도C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② 熱源 공급이 편리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③ 기후, 가옥의 구조와 거주 목적에 適宜하여야 한다.

④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을 완전하게 시공한 우리의 온돌 성능에다 비교하여 보면 우리의 것이 실내의 온습도를 자유롭게 조절 못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서민 생활에는 가장 이상적이다. 습온도의 조절도 약간의 가공을 하면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보전적이고 경제적인

라고 하여도 그 시공을 소홀히 하고 사용 방법이 그릇되면 輕하여서 건강에 害를 끼치고 중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온돌 구조는 어떠하며 온돌생활은 어떠할까? 그리고 불완전한 온돌생활이 가져 오는 질환은 무엇인가?

온돌의 구조는 자연발생적으로 “고인돌”의 사상으로 부터 기원하여 헛튼고래, 곧은고래, 부채고래로 발전하였고, 아궁이도 고인돌로 부터 화덕으로 발전하였으며 일부 온돌이 방진체에 이르는 과정에 소홀하였던 기술이 치밀해로 옮겨졌다. 그러므로 온돌 축조 기교가 치밀한 것은 완전무결하여 이상적 난방이 되지만, 불연하여 축조 기교가 소홀해서 연기가 逆出하던지 漏出하면 안질 또는 Gas (一酸化炭素, 亞硫酸瓦斯)中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화기의 접근 또는 과열로 말미암아 화재를 유발하게 된다.

온돌을 축조함에 있어는 아궁이는 濟州島式과 같이 화덕도 만들지 않고 고인돌 위에 솥을 얹는 비 문화적인 짓은 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화기를 보호하고 연기의 누출을 방지하는 화덕과 아궁이를 막는 뚜껑이 있어야 하고 연통을 세워야 한다. 남한 일대의 농촌에서는 연통은 없이 아궁이만 높은 관계로 연기의 역출이 심하며 이것이 가장 심한 강원도 산악(평창)지대에는 낮은 연통이 부엌 아궁이 곁에서 있어서 연통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인하여 천장과 벽이 漆黑되어 있으며 炊事婦들은 여러 가지 안질에 걸리고 있다. 제주도의 예를 보면 急慢性 結膜炎, 鼻淚管閉鎖, 櫻

性淚囊炎 眼臉綠炎 睫毛亂生等を 일으키고 심하면 실명까지한 것을 필자는 실제로 보았으며, 극한한 지방의 예로는 北滿克山지방에서 취사부가 역출되는 연기로 말미암아 급격히 심장이 악화되는 克山病이 걸려 급사한다는 보고가 滿洲醫大 원교수에 의하여 보고되어 있다.

煙道 축조시는 온돌판이 동요않도록 초석을 잘 고정시키고 온돌하부(아랫목)와 상부가 골고루 덥도록하며 주위의 방(榜)목과 온돌 초석 그리고 구들장이 닿는 곳에 과열 발화가 없도록 잘 시공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항상 까스가 나오는 곳도 이 곳이고 화재를 일으키는 곳도 이 곳이기 때문이다.

온돌의 발화는 수리 건조시 이 곳의 시공 불완전과 과열로 부터 온다. 그리고 온돌은 하부를 심히 저락시킴으로써 연소도 잘 되고 상부도 균등하게 온난하여 진다. 근일 도처에서 신축 가옥의 온돌 장판이 부패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술의 줄열도 있지만 업자의 비양심으로 온돌을 충분히 말리우지 않은 위에 유지 장판을 하므로 증기가 발산할 毛細氣孔이 閉塞되어 소위 “썩구들”이 되는 것이다.

연통은 보건상 또는 연소상 필요 불가결의 것이며 무연탄 사용 연통은 가늘고 짧아도 무방하다.

온돌 생활의 주위 사항은 다음의 주택 생활에 관한 기타 유이점 란에 적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약한다.

(9) 기타

주방 변소 목욕탕과 급 배수 문제는 후진

국가에서는 等閑히 취급하는 감이 있다.

① 주방은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을 취급하는 요리장 입에도 불구하고 거개의 가정을 살펴보면 쥐와 파리가 뒤끓는 棲息處같은 調味料과 시탄, 급수와 배수, 그리고 食床 운반등의 불편은 一口亂說할 지경이다. 이러한 주방의 불편과 파로를 제거하고 보건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주방 시설을 현대화해서 위선 급수와 배수를 용이케 하며, 식기 일체와 잔존 음식물 일체는 찬장속에 보관토록하는 외에 또 식기 일체는 끓는 물로 소독하여야 한다. “행주”도 그리 깨끗한 것은 못되니 담그는 물을 자주갈아서 정결히 사용할 것이며 가끔 끓는 물에 집어 넣어서 煮沸 소독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리를 하여야만 소화기 전염병을 방지할 수 있다.

② 변소는 병원체의 소굴이며 위생상의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다. 赤痢, 장티부스, 기타 소화기 전염 병원과 각종 기생충 및 해충들이 무수히 棲息하고 이것들은 파리에 의하여 용이하게 우리들 식탁에 반입하게 되므로 보건상 가장 위험한 곳이다. 더욱이 성인 1인의 1일 평균 대변을 100~150g 소변을 1,000~15,000g 을 배설하므로 그분량은 막대한 것이다.

불완전한 변소는 근방을 오염시키기 쉬우므로 “우물”과는 적어도 10~20미터는 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이 변소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변소를 가장 등한히 취급하고 있다. 아무리 현대식 주택을 건축하여도 변소만은 본 건축을 완료

한 殘品으로 간단하고도 소홀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아직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변소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변소에는 과도한 금액을 투입치 않으려는 심정들인 것이다.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변소는 汲取式 변소이지만 농촌에는 地表변소가 많아서 돼지가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퇴비에 混合腐蝕 또는 金肥로 사용한다. 그런데 변소라 하면 기생충 문제가 크므로 일본에서는 대소변을 分離貯藏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실험후 결정하고 실천에 옮긴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은 소변에 비료성분이 70%나 있고 또 기생충란이 전혀 없다는 것과, 대변은 30%의 비료성분에 기생충 및 이 이에 한하여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농촌에서는 이러한 학리를 몰랐지만 야채에 주기 위하여 소변만 따로 모아서 썩이는 풍습은 대대로 전하여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방법이 널리 보급 이용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만약 변소가 흡취변소인 경우 변소 통속이 암흑하며는 파리류가 출입하지 않으니 사용할 때를 제외 하고는 뚜껑(蓋)을 단단히 덮어 두어서 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바쁜 세상에서는 변소도 일시의 휴식처요 또 사색처이니 주택의 단 부분과 같이 청결하여야 한다. 근일 도시에는 수세식 변소가 유행하니 경제만 허락한다면 이것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糞尿分離式변소를 채용하는 것이 適宜

하다고 본다.

③ 목욕탕은 주택에 있어 가장 필요한 시설의 하나인데, 이것도 疎忽히 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의 소 주택과 농촌 주택에는 설계 속에 이것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으며 도시의 대소 주택은 설혹 형식적인 목욕탕은 두나 洗鉢場이 너무 작아서 몸을 움직이기 곤란할 정도이고 너무 좁아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목욕탕이란 몸을 씻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날의 피곤을 다 잊고 조용히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며 장소이고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이 이 목욕하는 시간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목욕탕은 좀 더 賣瀾하여야 하겠다고 본다.

④ 도료와 색조

현대 문명은 도료와 색조의 連鎖이다. 특히 거주와 환경의 색채 명암은 우리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공적으로 조절하여 생활을 쾌적케 해서 능률을 증진한다는 것은 현대의 공통된 의욕이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에도 색채 문화가 들어와서 주택의 내외를 찬란하게 장식하고 있으니, 이것은 매우 좋은 樣態라 하겠으며, 아직 색채에 대한 지식이 미흡한 듯하여 색에 대한 상식적인 것을 몇가지 적어 보려한다.

대체로 색은 色相이나 광명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색도가 높을 수록 눈에 자극을 주어 피로감이 심하게 되니, 특정 표식의 예는 쓰지 말 것이며 보통으로는 淡色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색은 우리의 정서를 유발하므로 이 點

에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즉 적색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橙色은 활발하고 정력적이고 황색은 명탕 건강을, 녹색은 신선과 청년색이고 청색은 적막감이 있으나 그래도 침착하고, 자색은 엄하고도 신비감이 있으며 백색은 순수하고 냉혹한 감이 있고, 흑색은 엄하고도 음울한 감이 있다. 그러니 이러한 여러 가지 색을 적당히 배합하면 좋은 색을 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색의 선택에 있어서는 반사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백색은 95%, 담크림색은 65%, 황색 濃褐色은 40%, 청색은 2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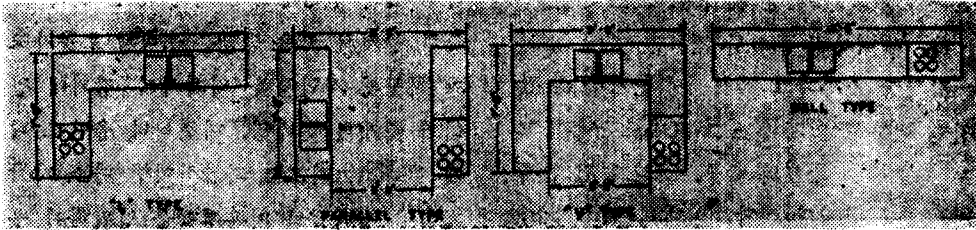
주택은 외관을 좋게 할 필요도 있지만 내부를 더 잘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 반대이다. 근일 소위 문화 주택형으로 도처에 건립되는 부흥 주택은 외관 색채에만 치중하고 내부 색채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으니 이런것은 점차 고쳐야 할 일이라고 본다.

주방과 같이 채광양을 無限 요구하는 장소라든지 또는 구조상 부득이 채광부족을 느끼는 곳에는 백색칠을 하고 그밖의 거실 침실등이면 가급적이면 광택을 피하고 수색 회색 란색과 같은 침착성 있는 색채를 취하는 것이 좋다.

⑤ 담장(垣牆)과 화초재배

주택 주위에 높은 토담을 쌓아 올림은 봉건시대에 마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의 문화 생활에는 가급적이면 낮은 木垣이나 生垣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는 달리 우리 한국은 불행하

Space and Equipment for Homema king PROGRAMS에서



<참고 그림 1>

<편리한 부엌 시설배치의 평면도>

계도 “담”위에 “담”을 쌓고 또 그 위에 어마어마하게 철조망을 치고 생활하는 형편이니 비록 인접 정원이 무장벽으로 연결되어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는 도시 주택의 위생 조건이 서 있어도 이것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담을 쌓아서 통풍 보다 방풍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비 위생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생활의 무미 건조를 방지하고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화초를 재배하든지, 그렇지 못하여 일 촌토도 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짚재배라도 하여서 실내 풍경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6. 주택생활에 관한 기타 유의점

(1) 신축한 주택에는 완전히 건조한 후 입주할 것

연와조 및 직벽과 같이 물로 그 성분을 고착시킨 것은 신축 당시에 과분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 비례를 보면 연와조 20% 진벽 40%의 수분을 함유하지만 진벽은 비교적 엷어서 건조기간이 짧은데 반하여 煉瓦造는 벽체가 두꺼워서 용이하게 건조가 되질 않고 수분이 장시간 체류

하여 실내를 음습케 하므로 주거자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 즉 감기 류마치스 신경통 소화 불량 등에 걸리기 쉽게 되고 점차 체질도 약화되어 지는 것이다. 건조는 통풍이 좋으면 속하나 동절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춘기 공사보다 추기 공사가 불량하다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주택의 벽이 잘 건조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 자체로 보든지 거주자의 건강보전, 물체의 보전상 매우 필요한 일이고, 또 거주자도 자각적으로 기분이 상쾌하여지고 실내에 상사 방산되는 병원균도 용이하게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축된 주택에 입주할때는 완전 건조를 기다려서 입주할 것이다.

(2) 借家上 주의사항

7. 도시 借家は 결핵전파의 근거지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대체로 결핵균이 감돌기 마련이다. 그런중에서도 도시주택이, 도시 주택 중에서도 주로 중류 이하의 세민층 주택인 불완전한 차이가 제일 심하다. 그것은 이터한 주택은 좁은 대지에 밀립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좋지 못하여 실내는 항상 습윤되어 병원균이 항상 잠재할 뿐만 아니라 환기조차 불충분하여 공기

전파의 기회가 많은 것이다.

ㄴ. 借家시에 주의할 점.

차가가 소재하고 있는 주위환경을 잘 관찰할 필요도 있지만 그 보다도 충분하고도 양호한 상수도와 배수, 그리고 전기 사정, 채광 환기의 상황, 실내의 건조여부, 방한 방식의 결합 유무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ㄷ. 입주 전에 방을 소독할 것.

전에 살던 사람들의 건강여부, 사망자의 병명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 원칙적으로 주택이 불결하면 병균이 잠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서 충분한 청소는 물론이지만, 잠재하고 있는 병원균 기타 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방안을 소독하여야 한다.

「티브스」 「티푸테리아」 병균은 5%의 석탄산수와 2%의 「구레졸」 석검수로 살균소독이 되지만, 결핵균은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 결핵균은 「홀마린」瓦斯에 의하여 간단히 살균되고 「다다미」방은 「다다미」 속에 있는 병균은 보통방법으로는 도저히 살균이 안되므로 「戸田」 「藤原」박사가 연구 발표한 「홀마린」 鋸屑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ㄱ. 일광과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도입할 것.

일광과 신선한 공기는 우리의 건강 요소이며, 대가가 없는 자연의 혜택이니 무조건, 충분히 받아 드려야 한다.

ㄴ. 저온 생활을 장려할 것.

우리의 생활은 자연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유지에 가장 좋은 것이다.

특히 동계의 고온 생활은 우리의 호흡기도와 피부의 저항력을 약화시켜 감기에 걸리기 쉽게하고 폐염, 폐결핵의 유인도 되게 한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다소 자극적이며 생리적인 저온생활을 영위하여 우리 신체의 저항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ㄷ. 대청결, 보수를 여행할 것

일반 청소는 매일하여야 하겠지만 적어도 월 1회 정도의 대 청결과 년 1회 정도의 보수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우리의 주택 생활의 올바른 길이며 보건상, 경제상 가장 유리한 것이다.

결 언

우리 인간은 자연인으로 부터 주택인이 된 뒤로는 오랜동안 주택의 포로가 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이것에서 해방하여 자연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동경하여 자연의 조건 밑에 살려고 염원하는 나머지 현대는 창을 최대한 크게하여 따뜻한 양광과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받아드리고, 난방은 어느 정도의 저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지식인들이 건강 유지상 또는 경제 절약상 채택할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주택의 양부는 채광 환기 온도의 조절등 삼자의 적부여하에 대체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주택 보건 문제는 현대의 주택 발전에 핵심체가 되며 또 인간의 생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